

함평자동차극장 지역 랜드마크 ‘우뚛’

입장료 수입 3억원 육박...누적 차량 1만5천대
세외분야 싹쓸이...농업대학 등 각종행사 활용

지역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함평 자동차 극장’이 개관 1년만에 지역 문화 랜드마크로 우뚛 섰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일원에 문을 연 함평 자동차극장은 개장 8개월 만에 관람차량 1만대가 다녀갔다.

이어 1주년을 맞는 이달 기준으로 누적 관람차량 대수가 1만5,000대를 돌파했다. 총 관람객 수는 3만7,500여명으로 입장료 수입만 3억원에 육박한다.

또 개장 후 식당·카페 등 읍내 음식점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자동차극장이 비대면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해 영화관뿐 아니라 각종 행사를 위한 ‘비대면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등 공간 효율성을 높여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3월 함평자동차극장에서 전국 최초 비대면 방식의 ‘군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농업대학 입학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코로나19 시

대 ‘안전한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함평자동차극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 릴레이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자동차극장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를 주제로 ‘2021년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잡종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정책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등 잇단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동차극장의 우수 운영사례를 접하고 부산시,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수준 높은 서비스로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함평 자동차극장은 최신시설의 상영관 2곳(나비관·황금박쥐관)과 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개방작을 관람할 수 있다. /함평군 제공

화순, 설 연휴 응급진료 체계 운영

병·의원·약국 78곳 지정
24시간 진료공백 최소화

화순군이 설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응급진료 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2곳 등 병원 6곳, 의원 49곳, 약국 22곳, 보건소를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진료와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고려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자와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에는 안전 상비약품 판매업소 29곳(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 상비약품을 사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061-379-533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성 일상회복지원금 85.6% 지급

장성군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6일 만에 지급률 85%대를 넘어섰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액을 지난해 대비 2배 늘렸다.

앞서 장성군은 전체 주민 4만3,517명에게 2년 연속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말 빠르게 본예산 편성 시 90억원 전액을 군비로 확보했다.

올해 지원금 지급 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신속한 지급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다. 장성군은 명절 경기부양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 연휴 이전까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 계약 사전심사제 도입 12억6천만원 예산절감 효과

장성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1년도 예산 12억 69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

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총 296건으로, 장성군은 이 가운데 1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항목별로는 공사 138건에 10억 7,200만 원, 용역 91건에 1억 9,700만 원이다.

군은 매년 개정되는 품목 등 관련 자료와 사업의 목적,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특히, 부실 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 등에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중점 검토

영광 “재활용품 주고 생필품 가져가세요”

폐전지 등 수거 참여 당부

영광군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전지, 종이팩 수거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폐

건전지 10개를 모으면 새 전지 2개로 교환해주고 종이팩(우유팩, 두유팩)을 모으면 화장지 3롤로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재활용품 회수 취약품목인 폐전지와 우유팩을 보다 원활히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추진한다.

교환장소는 군청 도시환경과와 각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수거된 폐전지와 종이팩은 재활용품 처리업체로 반입해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폐전지는 수은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생활 쓰레기로 매립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유팩도 분리배출만 잘하면 경

제성이 높은 재활용가능 자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폐전지와 종이팩 등을 적절하게 회수하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군민의 건강과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영광·신안·보성, 저수온 ‘주의보’

수온 4도 이하 지속...농성동·돝늪 등 폐사 위험

영광군은 송이도 남단-신안 사육도 남단, 득량만 해역에 저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어가들에게 주의의를 당부했다.

이들 해역은 수온이 4도 이하가 지속돼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저수온 경보가 발령됐다. 실제로 영광 낙월, 신안 어의, 보성 동을 등의 연안 수온이 3.0-5.8도로 평년보다 0.5-1.2도 정도 낮아졌다.

저수온 경보는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관심 단계는 저수온 주의보 발령(4도)이 예측되는 약 7일 전 알린다.

주의보의 경우 수온이 4도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 해역에 내려지고 경보는 4도 이하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저수온이 예상되는 해역에 내려진다.

도는 또 저수온 대책 종합상황실 및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군이 함께 구성한 현장대응반은 저수온 해역 어가를 방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에게 수온측정 결과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당분간 한파가 지속돼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저수온 기간 어류 등 양식생물 생리 변화에 따른 대량폐사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양식생물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료 섭취량과 소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8도 이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져 폐사할 수 있다.

특히 농성어, 돝늪, 쥐치 등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은 사료 공급량 조절, 영양제 공급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저수온에 약한 양식생물은 조기에 출하해야 한다. /김영민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김금주 공예명인, 담양군에 장학금 기탁

담양군은 최근 김금주 공예명인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전했다.

담양읍에서 칠선전수관을 운영 중인 김금주 명인은 40여년의 세월을 칠선 공예 분야에 몸담아 지역 공예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꾸준한 지역인재 사랑을 실천해 누적 금액 250만원을 기

탁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지원해주신 기부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주시는 김금주 공예명인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고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성, 귀농·귀촌인-원주민 화합 앞장

장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과의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군은 “따뜻한 귀농·귀촌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내에 미니정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함께 환경개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 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도마을 견학, 체험 등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체력검정

장흥군은 최근 군공설운동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선발을 위해 체력검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는 48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은 12kg 무게의 등짐팩을 메고 운동장 5바퀴를 18분 내에 통과해야 한다. 체력검정에서 통과한 지원자는 접수

된 서류 검토한 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이달 24일부터 예방진화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이욱형 기자